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7호 [루계 제26101호] 주제 107 (2018)년 8월 15일 (수요일)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을 존엄 높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을 존엄 높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이자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경제건설 대전군이 힘들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서 우리는 조국해방 7·30을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찾아주신 8월 15일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조선의 새 기원이 열리며 민족사적인 경사의 날이다. 온 세계가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며 조국 해방의 환희로 물들인 감격의 그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우리 조국이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존엄 높고 치고 우뚝인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이 꽂퍼린 오늘의 궁금들은 현실로 역사의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혁전만리를 헤치시며 있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 불체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으켜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당의 령도 따라 우리 조국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냄원이 실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여 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 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同志, 김정일同志이 걸어온 역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할 대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성장 백두산 축기기 암록강 굽이굽이에 피어린 자우를 세기시며 간악한 일제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

의 혁신적업무를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시다. 일찌기 인민이 주민된 나라를 일떠 세울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심으로써 익암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

의 일제에 희생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조국을 찾으셨던 일제의 일상으로서는

우리 조국은 일심단결의 정치사상

강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위용펼치게 되었다. 뿐에 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산군의 거치들이 세 군주주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호히 짓부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부강조국 건설역사에 글문자로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심과 혁명의

기적을 통해 우리 조국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빛나고 있다.

그 어느 위인도 떠올 수 없는

천재적재치와 탁월한 평도력을, 숭고한

인덕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인미당의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

하시며 이 땅우에 민족번영의 새시대

를 펼쳐주시었다. 주체사상의 가치

밀에 인민대중의 무공무진한 창조적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우리 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령도가 있었기

우리 조국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솟구쳐오르게 되었고

온 나라에 『제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되었다. 그쳐

럼 짧은 기간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지위와 운명에서 국적인 전쟁을

가져오시고 부강조국건설의 억년기

를 마련해주시면서 당대 한 수령님의

애국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

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우리

조국을 불폐의 강국, 인민의 봉원으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

하고 노력해온 혁명파의 헌신으로

개척된 사회주의를 실현해나가는 혁신의

새시대를 펼쳐시고 탁월한 사상과

평도로 동로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아이신 분이 위대한 장군님

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의적인

평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결연

한 투사, 정신력의 강자로 자라나고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다.

국력증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파괴 방대한

정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가 사문화를 펼쳐시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우리 조국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일심단결은

영원한 진격의 나팔소리 - 빨찌산혁명가요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작된 혁명가요들의 심원한 음악세계를 새겨보며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조국은 지금 번영의 꿈과 비상을 실현해나가는 직선주로에 확고히 들어섰다. 경제건설에 힘력을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더욱 가능화하기 위한 장엄한 대전군속에서 5개년전략목표 수행 중간돌격운동에 파감히 전개되고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하는 로열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이 온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격동하는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하여 당시 세시한 파업판월에 산악같이 펼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사상의 무기는 무엇인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승리에 대한 드높은 신심과 용맹, 혁명투쟁과 위훈에 대한 높은 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펼펴 뛰어 하는 전격의 나팔소리를 파악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아래 백두의 설한봉속에서 창작된 항일혁명가요의 우렁찬 노래소리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이 사상감정과 정서를 반영하여 창조된 것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음악예술은 전투적으로 소성화되었으며 강하면서도 혁명적량만과 정서가 뜨겁게 굽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항일혁명가요는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사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둔하니 무장시기고 대중의 전투적사기와 열정을 북돋아주는데 있어서 그 어떤 노래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진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본보기적 음악에 숨져보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백전불굴의 혁명정신, 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완강한 자력자강의 정신, 투철한 단체계급의식과 혁명적학관주의로 일관된 항일혁명가요는 그대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거울로 비쳐졌으며 혁명대오안에서 투쟁의 노래, 신령의 노래가 즐기차게 쏟아져나오는 한 원통력으로 되었다.

그런가 하면 『밥짓던 누나는 식칼들고 나오고 글읽던 오빠는 책을 들고 나오라』라는

영구걸과 더불어 더욱 인상깊은 『동원가』, 『로동자는 망치를 들려메고 농민은 평이와 호미를 메고』라는 가사구절이 미치집증로화, 편증포화의 멍렬한 포성과도 같은 선율과 어우러져 울리는 『경사전가』는 고된 노래로 동지에 서서 쓰러졌던 사람도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게 하고 조국의 압탕한 현실을 외면하고 통면하는 흐리려분한 사상정신상태까지도 말끔히 가셔낸 혁명의 힘찬 북소리, 투쟁에로 전민을 절기시킨 우렁한 호소이다.

항일혁명가요는 조국에 대한 강렬한

을악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제1세로 불리우는 총련 투사들이이다. 온 강토가 외적의 군회발에 짖밟히고 민족의 언어와 성과 이름마저 모두 빼앗긴 그처럼 암담한 환경속에서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밤찌산전쟁에 용약 참전하였다. 그자체만으로도 사상정신세계에 있어서 더 일이 숭고한것이지만 훗날 굽주립과 추위, 병마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간악한 일제놈들을 기어이 떠نة시고 조국에방의 대업을 완수한 투사들의 혁명신념, 혁명철개, 투쟁정신은 서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의 함과 고결함의 절정이였다.

바로 이런 투사들이 민족의 히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술에서 깨친 혁명의 진리를 종자로 하고 자신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대로 형상적바탕으로 창작한 노래들인 것으로 하여 항일혁명가요는 그토록 비상한 혁명적정과 고귀한 질리로 충만되어 있는 것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누리에 불이 불이요 철레를 워지는 마는 마치자 회망의 표대는 불은키요 워치는 눈은 구호는 투쟁뿐이라고 노래한 『혁명가』의 가사와 선율을 불러보노라면 깊숙한 조선의 밤하늘에 친란히 빛나는 한별을 우러르며 혁명의 길, 투쟁의 활무대로 어깨걸친 나가는 투사들의 씩씩한 보루와 기개가 운물을 달구어 저도 모르게 힘과 용기가 부쩍부족 솟는다.

『설한풍이 쓰는 험한 산중에 걸심풀고 씨워가는 우리 혁명군』이라는 구절이 새겨진 『혁명군의 노래』를 부르면 허리치는 눈을 헤치며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처부시고 불은기들이 나아가는 대오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고 『인민주권을 세우자』는 주체사상과 백전불굴의 혁명정신, 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완강한 자력자강의 정신, 투철한 단체계급의식과 혁명적학관주의로 일관된 항일혁명가요는 그대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거울로 비쳐졌으며 혁명대오안에서 투쟁의 노래, 신령의 노래가 즐기차게 쏟아져나오는 한 원통력으로 되었다.

우리의 항일혁명투사들은 변절자들의 더러운 낯짜와 투항을 설험하는 글이 계제된 신문에 침을 뱉으며 혁명가요 『적기』를 불렀고 감옥에서도 한수우들에게 너희들의 노래는 죽어가는 슬픔의 노래이고 멀땅의 주체사상과 백전불굴의 혁명정신, 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완강한 자력자강의 정신, 투철한 단체계급의식과 혁명적학관주의로 일관된 항일혁명가요는 그대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거울로 비쳐졌으며 혁명대오안에서 투쟁의 노래, 신령의 노래가 즐기차게 쏟아져나오는 한 원통력으로 되었다.

그런가 하면 『밥짓던 누나는 식칼들고 나오고 글읽던 오빠는 책을 들고 나오라』라는

영구걸과 더불어 더욱 인상깊은 『동원가』, 『로동자는 망치를 들려메고 농민은 평이와 호미를 메고』라는 가사구절이 미치집증로화, 편증포화의 멍렬한 포성과도 같은 선율과 어우러져 울리는 『경사전가』는

고된 노래로 동지에 서서 쓰러졌던 사람도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게 하고 조국의 압탕한 현실을 외면하고 통면하는 흐리려분한 사상정신상태까지도 말끔히 가셔낸 혁명의 힘찬 북소리, 투쟁에로 전민을 절기시킨 우렁한 호소이다.

항일혁명가요는 조국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애국주의정신의 숭엄한 절정, 역천만번 죽더라도 혁명의 한걸에서 굽함없이 싸워나갈 강한 의지를 향한의 가슴에 새겨주는 혁명적신념의 정화이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 철학적이면서도 사색적인 가사를 조용히 외우고 봄날같이 은은한 그선율에 퀴를 기울이느라면 정든 고향산천에 대한 사무치 농들을 기어이 떠نة시고 조국에방의 대업을 완수한 투사들의 혁명신념, 혁명철개, 투쟁정신은 서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의 함과 고결함의 절정이였다.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애국주의정신의 숭엄한 절정, 역천만번 죽더라도 혁명의 한걸에서 굽함없이 싸워나갈 강한 의지를 향한의 가슴에 새겨주는 혁명적신념의 정화이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 철학적이면서도 사색적인 가사를 조용히 외우고 봄날같이 은은한 그선율에 퀴를 기울이느라면 정든 고향산천에 대한 사무치 농들을 기어이 떠نة시고 조국에방의 대업을 완수한 투사들의 혁명신념, 혁명철개, 투쟁정신은 서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의 함과 고결함의 절정이였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가요는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투쟁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찬운령이 막아나서도 견인불발의 의지와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특징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자

위대성 선전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생기勃勃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
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
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
이 새겨주는 것은 수령님의 불멸

모란봉구역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의 업적을 천추민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진행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
니다.』

모란봉구역 당위원회 일군들
이 이 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
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진행
하여 실효성을 거두고있다.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고교록 학습열풍

구역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세어주기 위한
교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을 수록한 다매체편집물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허원철구역당위원장은 이 사
업을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끝
나가기 위한 학습작전안부터 면
밀히 세우게 했다.

특히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고교록 학습에서 일군들이 모범
을 보이게 하였다. 온 구역에
회고록 학습열풍을 일으키자면
일군들부터 회고록에 담겨진 길
은 뜻을 빠져 새겨내고나면 보
았던 것이다.

얼마전 구역급일군들을 대상
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개승본)
제 8권에 수록된 『개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진
행한 것이 그 실례이다.

구역당위원회, 구역인민위원회
참관의 실효를 높여준 합창경연

모란봉구역에 사는 사람이라
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개선연설 내용을 한
차례 들고 수령님의 조국해방
업적과 조국건설업적을 실천으

개선문에 대한 창판을 통해 심
화시켜나갔다.

창판을 조직하기에 앞서 구역
당위원회가 잘한 것인가. 그
오히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당조
직별로 개선문에 대한 창판을
조직하였을 때에도 그렇다.

우선 창판자들이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
의 업적을 보여주는 도서들을
빠짐없이 읽어 하였다.

창판에 앞서 김 일성 -
김정일주의 연구실에서 개선문
에 대한 안내 강의도 조직하였다.

참판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준비비에서 지난 8월 초부터 당조
직별로 개선문에 대한 집중창판
이 진행되었다.

창판의 실효는 매우 커다.

창판은 강사와 호흡을 같이 하
면서 사내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체득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창판의 실효를
높이 위해 일련의 당조직별로
행복한 계기로 되었다. 모
란식료공장의 현대화를 앞당기
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
오고 그 결과를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실제를 내고있는 사실을
놓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구역
안의 모든 당조직에서도 다매
체편집물을 통한 고교록 학습열
풍을 세워 차기 일정에 깊이

체득하였다.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
의 혁명업적을 소리높이 가구하
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방도를
선택한 5개년 청탁목표수행을 위
한 춘산돌격운동에 한 사람같이
풀려나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서찬구역당부위원장을 비롯
한 선전선동부일군들은 경연의
실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계와 방
향을 명백히 세웠다. 그런 다음
불기고전적명작 『사향기』, 『
반일전기』를 비롯한 노래종
목을 선정하여 아래단위 당조
직별로 개선문에 대한 창판
을 발기했을 때였다.

본사기자 손영희

높여준 합창경연

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맞쳐나서야 한다.

이것은 구역당위원회가 중요
하게 강조하는 문제이다.

구역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구역당위원회는 창판의 실효를
높이 위해 일련의 당조직별로
행복한 계기로 되었다. 모
란식료공장의 현대화를 앞당기
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
오고 그 결과를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실제를 내고있는 사실을
놓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구역
안의 모든 당조직에서도 다매
체편집물을 통한 고교록 학습열
풍을 세워 차기 일정에 깊이

체득하였다.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
의 혁명업적을 소리높이 가구하
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방도를
선택한 5개년 청탁목표수행을 위
한 춘산돌격운동에 한 사람같이
풀려나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서찬구역당부위원장을 비롯
한 선전선동부일군들은 경연의
실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계와 방
향을 명백히 세웠다. 그런 다음
불기고전적명작 『사향기』, 『
반일전기』를 비롯한 노래종
목을 선정하여 아래단위 당조
직별로 개선문에 대한 창판
을 발기했을 때였다.

본사기자 손영희

기획제작련합기업소 압연공무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에 떠나온 지략과 전법.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승리만
을 떨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출위인상을 격조높이 구가하

였다. 경연은 참가자들의 혁명
신념, 계속혁명의지를 배여준
제기로 되었다. 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카리스마신으로
더욱 절실히 무장하며 주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끌까지
완성해 나갈 신념과 의지를 힘있
게 퍼뜨렸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가요합창경연은 창판의 실
효를 높여온 의깊은 교양사업

이였다.

도서 선전 활동

구역당위원장을 비롯한 일군
들은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
해주었다.

수차례에 걸친는 합창이 진행
되고 당책임일군이 직접 그 파
장을 지도하였다. 구역급일군들
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서해
설선전활동을 벌여 출판물보급
원들은 삼지연군구리기전투장
에 달려나가 전투장을 종횡무진
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도서해설
선전활동을 벌리였다. 시간은
걸지 않았지만 감화력이 큰 예
책을 해설선전하는 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갈 결심을 암고
수십년간을 구역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구역당위원회는 출판물보급소
의 보급원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성과 당정책을 해설선전하
는 사업을 더욱 풀어나가기 위해
설선전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또한 협동에서 기동적으로 도서해
설선전을 벌리는것으로 하여 실
효가 즉시나마 되어나가게 되었다.

사상교양사업에서 실효를 거
두자면 방법이 참신해야 한다.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

작업반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몇몇 노력을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 실현은
당세포를 대상으로 도서해설
선전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관을 놓고
나온다면 감화력이 없을 것이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를 대상으로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도서해설선전의 실효는 대단
히 커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
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줄 수 있었다. 또
한 협동에서 기동적으로 도서해
설선전을 벌리는것으로 하여 실
효가 즉시나마 되어나가게 되었다.

작업반에서는 이 사업에 깊은
인연이 있는 당원들과 당세포
들이 삼지연군구리기전투장에
달려나가 장관에서 사서 『백두
산』에 삼지연군구리기전투장의
사업이 강조해주고 있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렬
한 조국애, 항토애를 심어주고
나온다면 그에 맞는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물보급소
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초급당일군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총진대회 북, 남, 해외 공동 결의문

오늘 우리는 북남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위한 역사적 정의 시작된 빛나는 민족사의 전변기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총진대회를 뜻깊게 진행하였다.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지고 떡기워진 나라와 민족의 혈맥을 잊고 자주권을 행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는 70년을 넘어섰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고난과 봉사를 함께 하였던 애국애족의 길에 얼마나 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어려웠던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을 계승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조국통일의 거치이다.

판문점선언의 체택은 조선반도의 광활한 평화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

조미수뇌 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

하고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평화적 조건을 담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빙면에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키ング 일방적인 요구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와 경제협력재개반대, 《제재》 강화라는 강도적인 내정 간섭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

국통일총진대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전민족적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된다.

1.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6. 15 공동선언을 계승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조선반도의 정신과 원칙에 기초하여 한다.

2. 민족자주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3. 판문점선언의 기본핵은 민족자주이다.

4.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북남관계 발전은 반드시 민족자주의 정신과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5. 미국과 내외 반통일 세력의 공모 결탁으로 산생된 제재와 대결공조는 사대주의와 분단 악의 산물이다.

제재를 유지한 채 교류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로이며 제재에 동조하면 어떤 새로운 판계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을 제쳐놓고 외세의 눈치를 살피면서는 더욱 역사적 핵심을 알 수 없다.

더우기 외세의 전쟁 위협과 민족문제에 대한 횡포도 한 간섭이 있는 조건

에서 북남관계 발전은 반드시 우리 민족

끼리의 정신과 원칙에 기초한 민족자주

의 가치를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북남관계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기 위해 민족자주의 가치를 더욱 높여 들고나가자!

3.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반대하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춤동을 과감히 물리치는 투쟁에 한 사람같이 펼쳐나갈 것이다.

4.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가치를 확장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5. 북남관계 발전을 자주통일의 대통로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제재와 대외 동맹을 단호히 반대하며 항구적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또한 우리는 판문점선언에 기초하여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총진대회를 내외 반통일 세력의 제재와 대회합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거제의 반미자주통일 운동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다.

족공동행사를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으로 승화시켜 협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게 되었다.

모두가 거족적인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자!

4.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가치를 확장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북남관계 발전을 자주통일의 대통로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제재와 대외 동맹을 단호히 반대하며 항구적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또한 우리는 판문점선언에 기초하여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총진대회를 내외 반통일 세력의 제재와 대회합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거제의 반미자주통일 운동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다.

족공동행사를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으로 승화시켜 협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게 되었다.

북남관계의 획기적 발전은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의하여 달보이며 이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온 민족의 지혜와 총의를 모으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가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총진대회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제재와 대회합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거제의 반미자주통일 운동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총진대회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제재와 대회합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거제의 반미자주통일 운동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조국해방 73돐을 맞으며 《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자

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졌다.

보수 《정권》 하에서 맹각될대로 맹각되었던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해빙기로 맞이하는 8. 15 이지만 해방과 평화통일은 역사적인 4. 27 판문점선언의 탄생과 더불어 출발한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도도한 흐름 속에 마중한 것으로 하여 더없이 감화롭고 특별하다.

지금 이 땅 위에 지난해 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적인 사변들이 펼쳐지게 된 것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암이온 자랑한 결실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채택은 온 겨레에게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감돌던 한반도에 평화통일에 대한 커다란 믿음을 자리잡게 해준 민족공동의 특대사변이었다.

판문점의 퇴성과 더불어 우리 민족은 삼천리 강과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단의 장벽을 넘어 서해선, 동해선과 함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기판차가 달릴 환희의 날을 그려보았고 전한의 위험에 놓였던 절야마다에서 평화의 농악소리 높이 울려고 오목백과 무르익는 통일의 황금계절도 내다보았다.

통일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천하철승 백두산과 금강산, 보령산과 송도원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꿈이 실현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세인을 격동시킨 판문점의 특대사변에서 73년 전 해방 만세의 환호성을 뒤새기며 민족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미래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절실히 고대 하여온 우리 민중이었다.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100여 일간의 벅찬 령정 속에서 남북간에는 판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적대 대화와 접촉, 교류가 일상화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취해졌으며 각계총속에서 서로에 걸친 협력기운이 풍성연히 흘러나왔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의 치하에서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한 조선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봉파를 막기 위해 류현진의 군사부대를 확장하며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0차》 《제21차》 《제22차》 《제23차》 《제24차》 《제25차》 《제26차》 《제27차》 《제28차》 《제29차》 《제30차》 《제31차》 《제32차》 《제33차》 《제34차》 《제35차》 《제36차》 《제37차》 《제38차》 《제39차》 《제40차》 《제41차》 《제42차》 《제43차》 《제44차》 《제45차》 《제46차》 《제47차》 《제48차》 《제49차》 《제50차》 《제51차》 《제52차》 《제53차》 《제54차》 《제55차》 《제56차》 《제57차》 《제58차》 《제59차》 《제60차》 《제61차》 《제62차》 《제63차》 《제64차》 《제65차》 《제66차》 《제67차》 《제68차》 《제69차》 《제70차》 《제71차》 《제72차》 《제73차》 《제74차》 《제75차》 《제76차》 《제77차》 《제78차》 《제79차》 《제80차》 《제81차》 《제82차》 《제83차》 《제84차》 《제85차》 《제86차》 《제87차》 《제88차》 《제89차》 《제90차》 《제91차》 《제92차》 《제93차》 《제94차》 《제95차》 《제96차》 《제97차》 《제98차》 《제99차》 《제100차》 《제101차》 《제102차》 《제103차》 《제104차》 《제105차》 《제106차》 《제107차》 《제108차》 《제109차》 《제110차》 《제111차》 《제112차》 《제113차》 《제114차》 《제115차》 《제116차》 《제117차》 《제118차》 《제119차》 《제120차》 《제121차》 《제122차》 《제123차》 《제124차》 《제125차》 《제126차》 《제127차》 《제128차》 《제129차》 《제130차》 《제131차》 《제132차》 《제133차》 《제134차》 《제135차》 《제136차》 《제137차》 《제138차》 《제139차》 《제140차》 《제141차》 《제142차》 《제143차》 《제144차》 《제145차》 《제146차》 《제147차》 《제148차》 《제149차》 《제150차》 《제151차》 《제152차》 《제153차》 《제154차》 《제155차》 《제156차》 《제157차》 《제158차》 《제159차》 《제160차》 《제161차》 《제162차》 《제163차》 《제164차》 《제165차》 《제166차》 《제167차》 《제168차》 《제169차》 《제170차》 《제171차》 《제172차》 《제173차》 《제174차》 《제175차》 《제176차》 《제177차》 《제178차》 《제179차》 《제180차》 《제181차》 《제182차》 《제183차》 《제184차》 《제185차》 《제186차》 《제187차》 《제188차》 《제189차》 《제190차》 《제191차》 《제192차》 《제193차》 《제194차》 《제195차》 《제196차》 《제197차》 《제198차》 《제199차》 《제200차》 《제201차》 《제202차》 《제203차》 《제204차》 《제205차》 《제206차》 《제207차》 《제208차》 《제209차》 《제210차》 《제211차》 《제212차》 《제213차》 《제214차》 《제215차》 《제216차》 《제217차》 《제218차》 《제219차》 《제220차》 《제221차》 《제222차》 《제223차》 《제224차》 《제225차》 《제226차》 《제227차》 《제228차》 《제229차》 《제230차》 《제231차》 《제232차》 《제233차》 《제234차》 《제235차》 《제236차》 《제237차》 《제238차》 《제239차》 《제240차》 《제241차》 《제242차》 《제243차》 《제244차》 《제245차》 《제246차》 《제247차》 《제248차》 《제249차》 《제250차》 《제251차》 《제252차》 《제253차》 《제254차》 《제255차》 《제256차》 《제257차》 《제258차》 《제259차》 《제260차》 《제261차》 《제262차》 《제263차》 《제264차》 《제265차》 《제266차》 《제267차》 《제268차》 《제269차》 《제270차》 《제271차》 《제272차》 《제273차》 《제274차》 《제275차》 《제276차》 《제277차》 《제278차》 《제279차》 《제280차》 《제281차》 《제282차》 《제283차》 《제284차》 《제285차》 《제286차》 《제287차》 《제288차》 《제289차》 《제290차》 《제291차》 《제292차》 《제293차》 《제294차》 《제295차》 《제296차》 《제297차》 《제298차》 《제299차》 《제300차》 《제301차》 《제302차》 《제303차》 《제304차》 《제305차》 《제306차》 《제307차》 《제308차》 《제309차》 《제310차》 《제311차》 《제312차》 《제313차》 《제314차》 《제315차》 《제316차》 《제317차》 《제318차》 《제319차》 《제320차》 《제321차》 《제322차》 《제323차》 《제324차》 《제325차》 《제326차》 《제327차》 《제328차》 《제329차》 《제330차》 《제331차》 《제332차》 《제333차》 《제334차》 《제335차》 《제336차》 《제337차》 《제338차》 《제339차》 《제340차》 《제341차》 《제342차》 《제343차》 《제344차》 《제345차》 《제346차》 《제347차》 《제348차》 《제349차》 《제350차》 《제351차》 《제352차》 《제353차》 《제354차》 《제355차》 《제356차》 《제357차》 《제358차》 《제359차》 《제360차》 《제361차》 《제362차》 《제363차》 《제364차》 《제365차》 《제366차》 《제367차》 《제368차》 《제369차》 《제370차》 《제371차》 《제372차》 《제373차》 《제374차》 《제375차》 《제376차》 《제377차》 《제378차》 《제379차》 《제380차》 《제381차》 《제382차》 《제383차》 《제384차》 《제385차》 《제386차》 《제387차》 《제388차》 《제389차》 《제390차》 《제391차》 《제392차》 《제393차》 《제394차》 《제395차》 《제396

해방전 경흥군에서 감행된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진상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련행 피해자 문제 대책 위원회 조사 보고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군사적 강점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73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지만 수십년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 지금지도 잊혀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적 만행의 혼적이었다.

더우기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팔아 저지른 반인륜적 악행에 대한 원한은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1. 해방전 경흥군의 일본군 주둔 상황

1882년 임오군인 폭동을 구실로 조선반도에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기 시작한 일제는 로일 전쟁 직후 『한국주차군』이라는 이름으로 2개 사단의 무력을 조선반도에 배치하였다.

바로 그 2개 사단 중 19사단이 라남에 본부를 두었다.

라남제 19사단은 회령, 라남, 함흥에 보병대와 공병대, 기병대를 주둔시켰으며 중국, 로씨야와 국경을 접한 지역들에는 국경수비대를 배치하였다.

1937년에는 라진에 라진 요새사령부를 두는 등 북부국경의 흡은 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집중시켰다.

1920년대 당시 인구가 6 000여 명에 불과하였던 자그마한 산골군인 경흥군은 중국, 로씨야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국경경비의 중요성이 증시되었다.

일제는 반일 및 항일투쟁을 진압하고 이전 쏘련으로부터의 사회주

최근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련행 피해자 문제 대책 위원회에서는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폐망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간 나카무라 스미(일본 사람 92살)라는 여성성이 합정복도 경흥군 경흥면(당시)에서 일본군 위안소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한 증언을 입수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경흥군에 일본 경계를 꺾었다.

2. 원정동에 설치 운영되었던 일본군 『위안소』

나카무라 스미에의 증언에 기초하여 라선시 선봉지구 원정동에서 원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기에 설치되었던 일본군 『위안소』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1930년대 종업 또는 후반기에 세워졌다고 보아지는 『위안소』 건물은 높은 담장을 둘러친 1층짜리 벽돌집으로서 마을 한복판의 둔덕진 곳에 있었다.

건물 안에 들어서면 한쪽 방향으로 어려개의 개별 방들이 있고 매방의 출입문에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 장교들은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었다.

보통 날짜 저녁에는 장교들이 리용하고 일반 병사들은 일요일에 리용하였다.

『위안소』에는 17살~20살 정도의 남쪽 지방 저녁들이 꿈려와 있었으며 그들은 거의 같은 감금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인 김자령(남자 72살), 최창남(남자 73살)은 『어머니가 말하기를 해방전 여기에 일본군 병사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들은 대낮에도 건물에 바지지를 쥐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들어가곤 하였다라고 한다.』 『당시 건물에는 보통 날에도 일본군들이 숨을 쉬었으며 특히 일요일에는 일본군 병사들이 줄을 지어 순번을 기다리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고 한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김영숙(여자 92살)은 『그때

군 『위안소』가 일찍부터 출현 할 수 있음을 충분한 조건으로 되었다.

3. 원정동 『위안소』는 라남제 19사단 소속 일본군 전용 『위안소』

원정동의 『위안소』가 군전용이었다는 것은 이곳 주민 구성을 두고서도 알 수 있다.

『위안소』가 자리 잡고 있던 원정동은 당시 수십호의 농가밖에 없는 자그마한 동촌마을이었다.

이곳의 대다수는 경제적 토대가 미약한 소작농이었고 그밖에 현대화와

나카무라 스미에는 어느 날 판자로

높이 둘러막아 암을 들어다 볼 수 없게 하였다. 아이들이 그 앞에 와서 놀거나 들어다 보지도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다.

녀자들은 밖에 나올 수 없었으며 거기에서 담장을 친 마당안에서 거니는 것 같았던 것이다.

녀자들은 모두 어린 저녁들이였

는데 머리는 단수록하고 웃자리에 매우 활기차였다. 그들에는 임신한 저녁도 있었는데 여인 몸에 크게 부른 배를 안고 힘들게 앉아있는 모양이 틈새를 통해 보였다. 그들이 남쪽 지방의 말씨를 쓰는 것을 보아 다른 곳에서 데려온 저녁들 같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나카무라 스미에도

그는 이전부터 어떤 일본

군 고위부대를 하며 마을에 왔다

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현지 조사 결과 나카무라 스미에가 기억하고 있는 건물과 현지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의 『위안소』였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현지 주민들도 한결같이 『위안소』

에는 민간인들이 드나드는 일은 없고 일본군 장교들과 병사들만 다녔다고 증언하였다.

다음으로 『위안소』의 내부 형편과 여성들의 처지를 보고서도 알 수 있다.

『위안소』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으며 여성들은 거의 감금 상태에 있었다.

아이들마저 접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여성들이 탐관으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마당을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

은 그들이 나름 일본군의 성노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위안소』에 둘러친 높은 담장은 일본군들이 드나드는 것을 민간인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히로시마현 출신으로 당시 웅기전기 주식회사 전기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38년 4월에 경흥군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다.

나카무라 스미에는 어느 날 판자로

높이 둘러막아 암을 들어다 볼 수 없게 하였다. 한 걸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병사들은 모두 각별을 물어헤치고 서 있었다. 이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으니 온갖 환한 웃음을 하는 끝이라고 대답하였다.

나카무라 스미에는 이곳 여성들에게 높은 담장을 둘러친 1층짜리 벽돌집으로서 마을 한복판의 둔덕진 곳에 있었다.

녀자들은 모두 어린 저녁들이였는데 머리는 단수록하고 웃자리에 매우 활기차였다. 그들에는 임신한 저녁도 있었는데 여인 몸에 크게 부른 배를 안고 힘들게 앉아있는 모양이 틈새를 통해 보였다. 그들이 남쪽 지방의 말씨를 쓰는 것을 보아 다른 곳에서 데려온 저녁들 같았다.』고 하였다.

그는 이전부터 어떤 일본

군 고위부대를 하며 마을에 왔다

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현지 조사 결과 나카무라 스미에가 기억하고 있는 건물과 현지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의 『위안소』였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현지 주민들도 한결같이 『위안소』

에는 민간인들이 드나드는 일은 없고 일본군 장교들과 병사들만 다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만행죄악은 절대로 가려울 수 없다.

원정동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히로세키 일에 품절도 하기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로 상업적 매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적이 설치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현지 주민들도 한결같이 『위안소』

에는 민간인들이 드나드는 일은 없고 일본군 장교들과 병사들만 다녔다고 증언하였다.

다음으로 『위안소』의 내부 형편과 여성들의 처지를 보고서도 알 수 있다.

『위안소』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으며 여성들은 거의 감금 상태에 있었다.

아이들마저 접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여성들이 탐관으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마당을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

은 그들이 나름 일본군의 성노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위안소』에 둘러친 높은 담장은 일본군들이 드나드는 것을 민간인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이

곳 여성들이 남쪽 달씨를 유지할 수 있은 것도 결국 일본군인들만 상대하면 서 『위안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원정동 『위안소』를 일본군 전용 『위안소』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일본군 군의 정상적인 『검진』을 받았다는 것이다.

군인들 속에서 성병이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군의 직급 너성을 대 한 성병검사를 하는 것은 오직 일본군 『위안소』에서만 볼 수 있는 일 이었다.

이밖에도 라남제 19사단 소속 부대들이 주둔해 있던 경흥복도 청진사를 비롯한 성병검사를 위해 일본군 군의 가 오궁 하였다는데 대하여서도 증언하였다.

그는 이전부터 어떤 일본

군 고위부대를 하며 마을에 왔다

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세월의 흐름 속에 원정동의 『위안소』도 이제는 그 혼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만행죄악은 절대로 가려울 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파거 범죄를 흐만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온갖 비렬한 책들을 다하고 있지만 역사는 조선 여성들을 강제현행, 탐치, 유희 하여 성노리개로 유린하다가 무참하게 살한 일제의 반인종적 범죄를 만천하에 널리 고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파거 청산에 관한 책임을 끝까지 따질 것이다. 조선민족이 일본에 의해 당한 모진 불행과 고통, 수치와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주체 107(2018)년 8월 14일 평양

비루한 청탁외교

일본반동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퍼뜨리며 랍치문제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

바로 미칠정도로 수상 아베가 민 라원아 메리카의 작은 섬 나라인 웨인민트 그레너린드 당국자까지 청해 들어 랍치문제에 걸친 협력해 줄 것을 강령하였다. 그런가 하면 외상 고노는 싱가포르에 남아가 미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이 나라, 저 나라 외교당국자들을 만나 랍치문제에 걸친 협력을 하여 외교적 협력을 증진하였다. 그것을 인정하고는 아니었다는 소리를 하였다.

그야말로 가공하고 구차스러운 청탁외교이다.

일본은 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정치 대국』을 끌고 다닌다. 또 『자주외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이 어려워 떠들어대는 것이 현 정권이다. 이런 일본의 당국자들이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어보겠다고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일본은 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정치 대국』을 끌고 다닌다. 또 『자주외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이 어려워 떠들어대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정치 대국』을 끌고 다닌다. 또 『자주외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이 어려워 떠들어대는 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불리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 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우리에게 대화를 구걸하면서도 랍치문제를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일본의 외교를 청탁외교, 구걸외교라고 애수조소하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도 랍치문제를 계속 들고다니며 비굴하게 놀이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은 랍치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랍치문제에 중독되었다.

하기는 랍치내각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일본당국자들이 무엇때문에 그

렇게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비굴한 청탁

외교에 집요하게 매여 털리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백히 까닭이 않을 수 없다.

울해에 들어와 조선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정세를 완전히 털리고자 했던 것이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었던 조선반도에서는 대결과 불신이 아니라 긴장완화와 평화,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좋았던 것이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파거에 숨은 조선 사람들을 랍치, 강제로 일본에 박탈하여 흡수하는 행위를 강행하였다.